

아파트 재건축 줄줄이 또 '재심의'

이도주공 2·3단지-제원 도시계획위 문턱 못 넘어 차량진·출입구 축소 요구·폐도 사례 제시 등 주문

제주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7일 도청 삼다홀에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각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먼저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3개소의 차량진·출입구를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의 서쪽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률차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교통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도로변에도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30m인 고도를 45m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제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폐도)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사업자가 제출했지만, '비슷한 재건축 폐도 사례'를 찾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당초 지하 2층·지상 10층·14개동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9월 건축물 고도가 30m에서 42m로 완화돼 지하 2층·지상 14층·13동·877세대로 변경됐다. 제주시 연동에 1977년 건립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545세대이며, 사업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745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월동배추 출하... 분주한 손길 지난 18일 서귀포시 성신읍 한 밭에서 월동배추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이상국기자

제주 진출 추진 신세계면세점 다시 제동

신세계, 주차장 운영 등 보완 "극심한 교통체증 우려된다" 도 교통심의위, 재심의 결정

신세계 그룹이 제주에서 면세점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7일 신세계가 제주시 연동 뉴크라온호텔 부지에서 추진하는 면세점에 대한 심의를 개최, 재심의(보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첫 심의에서 "주차장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뒤 두 번째 고배다.

이번 평가에서 신세계는 전세버스 주차장을 KCTV(정실 방향) 인근에 82대, JIBS 맞은편에 18대 등 총 100대 규모로 조성하고, 중형버스 10여대를 이용해 손님들을 면세점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아연로(KCTV→제방사)에 예정된 도로확장공사 구간 가운데 600m 구간에 왕복 4차선 확장공사비(보상비 제외)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약 7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전세버스 주차장과 연결된 아연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해 도로 폭이 좁고, 교통량도 많아 수십대의 전

세버스가 몰릴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600m 구간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 산출에 대해 제시하고, 제주시와 협의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신세계는 현재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온호텔(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2020년까지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판매시설 면적은 1만 5000㎡로, 주변에 있는 롯데, 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오는 5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4·3정신 계승위해 노력할터" 원 지사, 통국사 재일본제주 4·3희생자 위령비 찾아 참배



19일 오후 오사카 텐노지구 통국사에 위치한 재일본제주 4·3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헌화하고 있다.

2020년 관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오후 오사카 텐노지구 통국사(統國寺)에 위치한 재일본제주 4·3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원 지사는 "위령비를 건립하기까지에 담긴 기억, 평화, 계승이라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제주도민과 함께 기리겠다"고 말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정신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 방문단과 더불어 재일본제주4·3유족회 오광현 회장, 생존희생자 송복희·고춘자·강춘자·이복숙 할머니 및 유족회 관계

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원 지사는 생존 할머니들의 손을 맞잡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앞으로 무병장수하셔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가는 모습을 꼭 지켜볼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위로에 생존 할머니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제주 방문단은 참배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오사카 제국호텔에서 열린 관서제주특별자치도도민협

회 신년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했다. 관서 지역은 4·3당시 제주를 피해 이주한 수많은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 만큼, 그간의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들에 대한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신년인사회 방문단은 지난 18일 리가로알호텔도쿄 3층 로얄홀에서 열린 '2020년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기후변화 대응·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추진

제주시, 사업비 202억 투입

제주시는 2020년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총 202억원(국비64억원·도비138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업비 33억원을 투입, 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2개년 계획을 실행한다. 도심 내 가로수 복충화 사업, 가로수 식재, 조림 등 나무심기사업추진 및 나무나누어 주기를 통한 시민참여 도

시녹화 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로수 전정, 꽃길조성 등 가로녹지관리에 27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시설물 정비 등 도시공원관리에 24억원,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관리에 47억원, 산불방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71억원이 투입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블록체인 공공선도시범사업 2년 연속 선정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공공선도시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지난해 6월 개소한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수거하는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등급분류 및 출고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추적하

는 것이다.

이번 선정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유통시장 등 전기차 후방산업 육성과 배터리 성능 평가 기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비 6억원과 민간기업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블록체인 공공선도시범사업은 2018년 3개 과제, 2019년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작목반, 농·감협,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선과기 개보수, 지게차, 규격별 계수기, 실명제 장비, 당·산도 측정기 등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장비 교체 및 구입비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서귀포시 소재 공고일 기준 등록된 감귤 선과장으로 과태로 체납 조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72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광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레조생	3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레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라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